

“화끈한 ‘운빨로맨스’ 뽐낸 내 성격 녹였죠

이청아 ‘운빨로맨스’를 마친 후...

확실하게 자기의견 드러내는 한설희
소심한 나와 정반대...성격 개조했죠
앞으로 목표요?
연인 이기우와 ‘스포츠크로맨스’에 풍덩



연기자 이청아는 MBC 수목드라마 ‘운빨로맨스’를 통해 타인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선물”로 배웠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연기자 이청아(32)는 최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운빨로맨스’를 통해 “선물”을 받았다. 현실 속 자신과 다른 성격을 지닌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그동안 주저해왔던 타인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교훈으로 얻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 ‘공’해 있을 일을, 이제는 바로 드러내게 됐다”고 했다.

이청아가 ‘운빨로맨스’에서 연기한 한설희는 완벽한 여성이다. 일에 있어 빈틈이 전혀 없다. 철두철미한 성격은 때론 불과도 같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줄 아는 인물이다.

“저는 화를 내고 있는데 주변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저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끼치게 되더라. 하하! 이번 드라마에서 저와 정반대 성격의 인물로 살면서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깨달았다.”

또 “풍성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드라마 속 가상의 인물이지만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를 연구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다보니 “실제로 싫어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며 웃었다.

이청아는 10년여 동안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시작은 “혼란스러웠다”. 대학 2학년 재학 중 이던 2004년 영화 ‘늑대의 유혹’을 통해 단숨에 스타덤에 오르면서 바쁘게 보내온 탓에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적기도 했다. “이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다면 손실이 덜했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30대인 지금은 “신입생이 다시 된 느낌”이다. 20대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했지만, 그동안 자신을 놀려온 만큼 이제는 과감한 시도에 주저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겁을 많이 내는” 태도에서도 조금씩 벗어나

고 있다.

연기자라는 직업인으로서 “다양한 곳에 이력서를 넣고 싶다”고 했다. “평생 연기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량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2008년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오디션 을 통해 조연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2009년 드라마 ‘그저 바라보다가’에선 황정민의 동생 역을 맡으면서 그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한 장면을 촬영하는 데 10번의 민폐를 끼친 끝에 성공했을 때, 그 ‘손 맛’을 잊지 못해” 기대되는 것도 그 까닭이다. 작품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 이든 참여하고 싶다.

“분량이 많은데 저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 어느 현장에서 누구와 함께 연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과 한 마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연기자로서 조금씩 성

장해가는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품 이외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이청아가 최근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 중 하나다. 그는 “제가 어떤 취향이고, 어떤 문화를 즐기는가를 공개하는 것도 연예인의 역할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작품을 알리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아는 8월 이후 당분간 연기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삶에 충실할 생각이다. 드라마 촬영 중 이사를 해 집안은 박스로 가득 차 있어 이를 정리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교제 중인 연기자 이기우와 보낼 여름휴가 계획도 짜야 한다. 두 사람은 레저스 포츠 커플로도 유명하다.

“당분간 과한 스포츠는 멀리하려고 한다. 겨울에 스키를 타다 다쳐서, 여배우라면 몸을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하하!”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뷰티풀 조기종영 KBS...“이젠 못 믿어”

콘텐츠 제작사 ‘몬스터 유니온’ 추진
“시청률서 자유롭지 못할 것” 의심

“KBS는 ‘몬스터 유니온’을 통해 공영방송사에 주어진 책무인 시청자를 위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과 방송문화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

최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구 독립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 등 방송 제작단체들과 참여연대 등이 KBS의 새로운 방송콘텐츠 제작사 ‘몬스터 유니온’ 설립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KBS는 즉각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방송가는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초기 종영 방침에 KBS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하고 있다. 이는 당장 8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몬스터 유니온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

KBS는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올해에만 벌써 두 편의 드라마를 초기 종영했다. 3월 2TV 월화드라마 ‘무림학교’에 이어 현재 방송 중인 2TV 월화드라마 ‘뷰티

풀 마인드’다. ‘뷰티풀 마인드’ 제작진은 주인공인 장혁과 박소담을 출연시키기 위해 첫 방송 날짜를 미루면서까지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해 초기 종영 방침에 대한 커다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전작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여러 차례 작가를 교체하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뷰티풀 마인드’의 촬영 시간을 벌기 위해 급히 편성한 4부작 단막극 ‘백희가 돌아왔다’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전을 펼쳐 기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KBS의 일부 드라마를 둘러싼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몬스터 유니온이 제작하는 콘텐츠라고 할지라도 시청률의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을 시선을 자아낸다. KBS가 강조하는 “양질의 콘텐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많은 시청자의 시선을 끌지 못하면 ‘뷰티풀 마인드’처럼 급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드라마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팬 약속이 최고...지현우, 이유있는 일본 팬덤

31일 일 팬미팅 위해 촬영 조정

연기자 지현우(사진)가 일본 팬미팅을 연다. SBS 수목드라마 ‘원티드’에서 활약 중인 지현우가 바쁜 촬영 일정 속에서도 31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 인터시티홀에서 팬미팅 무대를 펼친다. 일찌감치 일본 팬들과 나눈 약속을 고려해 ‘원티드’의 당일 촬영 스케줄도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서너곡의 노래를 부르는, 공연 위주의 팬미팅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현우는 2007년 8월18일 첫 대규모 일본 팬미팅 이후 매년 꾸준히 현지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 자신의 드라마를 소개하며 탄탄한 팬덤을 구축한 덕분이다. 지현우가 일본에 이름을 알린 것도 2007년 MBC 드라마 ‘메리대구 공방전’이 한류 위성방



송 KNTV를 통해 방영되면서부터다. 이후에도 SBS ‘달콤한 나의 도시’의 일본 수출이 이어지며 지현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드라마

속 인상적인 모습에다가 팬들을 배려하는 성격과 뛰어난 노래 실력까지 더해 상당한 팬덤을 쌓았다.

그는 2014년 5월 제대 이후에도 해외 팬들에게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다. 2014년 10월25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에서 펼친 전역 후 첫 팬미팅에서는 1200여명의 팬들과 함께했다. 이에 현지 팬들은 지난해 지현우가 주연한 MBC 드라마 ‘앵그리맘’ 촬영장에 분식차와 커피차를 선물하며 그와 스타프를 응원하기도 했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빅마우스

●“방귀를 뚫지 않고 살고 있다.”(방송인 박슬기) 24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결혼식 이후 2주 만에 생방출에 복귀해 ‘잘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국이가 크면 뮤지컬 배우를 시키겠

다.”(배우 송일국) 24일 MBC ‘휴먼 다큐-사람이 좋다’에서, 세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 민국이의 음감이 가장 좋다”며,

●“마동석, 거의 장비금.”(누리꾼 sina**) 영화 ‘부산행’이 400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기사 댓글에서, 영화 속 마동석을 ‘삼국지’의 장비와 비교하며,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그것 참 신통하다!

12步

걸음보

불편한 곳에 붙이고 12보만 걸으면 거뜰히!

신통방통-걸리고 쏘고 시큰거리는 곳을 신속하고 빠르게~
아하! 이게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제품이구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학적 원리입니다!
간편하고 쉽습니다!

KFIA
한국원적외선협회
강력한 원적외선 방출 음향칩 부착 패치

유시품에 주의하세요!
추천 월남전 참전 전우회원 장정훈

정무포상
2016 지방신문 한국인
윤원만장학회
회장 이근석

상장
그린상
솔원한방제약
회장 이근석
상기인은 중소기업청이 후원한 제14회 대한민국 환경창조경영 대상에 친환경 우수 중소기업 업체로 선정되어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6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제품명: 12보 파워칩 부착용 패치 1포8매치 / 제조허가 제215-21-23935호

(주)솔원한방제약
한방병원, 한의원 전문납품 기업

구입문의 1600-1043

(주)솔원한방제약은 전 솔표조선무약의 임직원들이 모여 만든 한방병원, 한의원 전문납품 기업입니다.